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공업, 카타르서 LNG선 4척 수주...100척 프로젝트 본격 가동

현대중공업이 Qatar Energy로부터 최소 4척의 LNG선을 수주한 것으로 보도됨. 시장 전문가들이 4척 확정 발주, 곧 2척 추가 발주 예정이라고 덧붙임. 현대중공업 납기는 2026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더 구루)

Deadline for declaring on 17 Mozambique LNG berths shunted back further

TotalEnergies 주도 모잠비크 LNG 17척 프로젝트는 2022년말로 미뤄짐. 현대삼호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2020년 9척, 8척을 각각 수주함. 2025년에 6척씩 인도하고, 나머지 3척, 2척은 2026년에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Clarksons says dry bulk commodity prices eclipse 2008 peak

Clarksons에 따르면, 최근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건화물 지수가 2008년 최고점을 상회하고 있음. Newcastle 연료탄은 10월 200달러/톤을 처음으로 상회했다고 언급함. 그러나 석탄 물동량은 팬데믹이전 고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Tradewinds)

Capesize bulker market continues upward trend for third-straight day

Capesize bulker 스팟운임이 3일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Capesize 5TC는 지난 25일부터 어제 30일까지 +18.7% 상승함. (Tradewinds)

중고 '컨'선도 천세

글로벌 상위급 컨테이너 선사들이 최고 한도액을 지불하며 컨테이너선을 매입하고 있음. MSC는 2007년 건조된 6,000TEU급 2척을 1.4억달러에 매입함. 인도시점도 2022년 3~4분기임. 전통 Panamax, Post panamax 장기 용선료는 여전히 강세이며, 향후 6~9개월간 매매 물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Seadrill bags multiple contracts as it prepares to emerge from bankruptcy

Seadrill이 2022년초 새로운 이사회와 Chapter 11(파산보호)에서 벗어날 계획임. 최근 Seadrill은 9월말 기준 수주잔고가 21억달러로 발표함. 2021년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임. (Upstream)